



양평군의회  
YANGPYEONG COUNTY COUNCIL

양 평 군 의 회

# 의 정 소 식 지

Yangpyeong County Council News Letter

2025. vol.47





## 2025 양평군의회 의정소식지 vol.47

---

발행인 양평군의회의회장 황선호  
발행처 양평군의회  
편집인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홍보정책팀  
주 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Tel. 031-770-2539  
[www.ypcouncil.go.kr](http://www.ypcouncil.go.kr)

2025  
양평군의의회 의정소식지

# CONTENTS ..... vol.47

<b>발간사</b>	4	<b>2025년 상반기 회기 운영 현황</b>	30
양평군의회회의장 황선호			
<b>양평군의의회 현황</b>	6	<b>2025년 상반기 5분 자유발언</b>	34
<b>의원별 의정 활동</b>	8	<b>2025년도 하반기 양평군의의회 회기운영계획</b>	5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b>군정소식</b>	52
<b>숫자로 보는 상반기 의정활동</b>	22	<b>군민과 함께하는 의정</b>	
<b>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b>	24	의회 참여 안내	57
<b>의정 뉴스</b>	26	SNS 안내	58
		의회소식지 신청 안내	59
		보이스피싱 안내	60

양평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균형감 있는 시선과  
단단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의장 황선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인사드렸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햇살이 유난히도 따사롭던 봄날부터, 폭우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여름까지, 군민 여러분과 함께한 2025년 상반기의 시간들은 저에게 큰 의미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발전을 위한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올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중심은 언제나 군민이라는 신념 아래, 민생 현장을 찾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군정을 점검하고 양평의 오늘과 내일을 연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도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군민의 시선으로 정책을 점검하였으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공부하고 현장을 챙기며 노력했습니다.

군민과의 소통 역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소규모 간담회와 마을 방문은 물론, 지역 축제와 생활 현장에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군민과 대화를 나누며 그 속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힘썼으며, 의회가 멀리 있는 기관이 아닌 늘 곁에 있는 친구처럼 느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의정소식지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한 양평군의회 다양한 노력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각종 간담회와 민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통한 사항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향후 양평군의회 의정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은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기후위기, 지역경제 침체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 교육, 문화, 지역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는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군민의 바람을 전달하는 ‘가속 페달’이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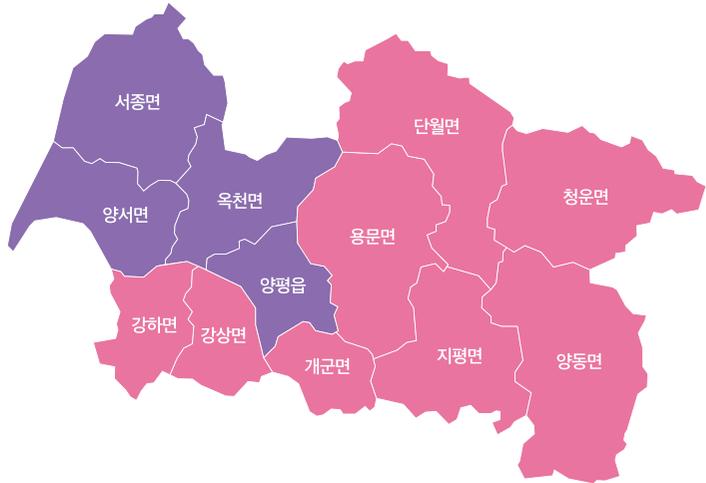
양평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균형감 있는 시선과 단단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의회 의장

황 선 호

행정구역으로 본  
**제 9 대 의 원**  
**현황**



**가선거구**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의장 **황선호**



의원 **윤순옥**



의원 **최영보**

**선거구**

국민의힘 가선거구

국민의힘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담당지역**

총괄

양서면, 서종면

양평읍, 옥천면

**담당분야(부서)**

총괄

문화, 관광, 교육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학습과

복지, 보건, 민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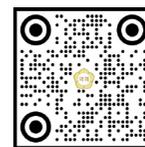
**사무실**

770-2500

770-2533

770-2532

**홈페이지**



## 나선거구

강상면, 강하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의원 송진욱



의원 여현정



의원 지민희

선거구

국민의힘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국민의힘 나선거구

담당지역

강상면, 청운면, 양동면

단월면, 용문면

강하면, 지평면, 개군면

담당분야(부서)

**지역개발**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환경, 도시**  
기후환경과, 청소과, 도시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사업소

**일자리, 산업, 경제**  
일자리경제과, 정원산림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축산반려동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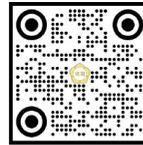
사무실

770-2535

770-2531

770-2534

홈페이지



## 비례대표



부시장 오혜자

선거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담당지역

양평읍  
양서면

담당분야(부서)

**군민자치, 행정**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무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사무실

770-2501

홈페이지





원칙과 신뢰로 바른 의회상을 만들고,  
군민의 소중한 말씀을 태산같이 여기는  
섬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황 선 호**  
의장

소속정당  
담당지역  
연 락 처  
이 메 일

국민의힘  
총괄  
010-4942-7895  
sunho5711@naver.com

### 대화로 이어가는 신뢰의 의정



내방객 접견 - 금강고숙



내방객 접견 - 양평경찰서장

### 교류와 연대로 더 단단해지는 의정



제175차 경기도시군회의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2차 정례회의 및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협의회 위촉식

### 군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의정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의정



제1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제27회 양평군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

군민의 어려움은 함께 고민해 해결하고,  
즐거움은 함께 나눌 수 있는  
튼튼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



**오혜자**  
부시장

소속정당  
담당지역  
연락처  
이메일

국민의힘  
양평읍, 양서면  
010-3346-5004  
nabinbae@naver.com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제1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2025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평지구협의회장  
이취임식



양평라이온스클럽 창립 제55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



제307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 업무제휴협약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카드 및 점검 할 수 있는 방법 마련 필요

### 비산먼지 -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가축(축산)분뇨처리 체계적 관리

비산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민원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사업

공모사업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평가표를 마련하고, 매년 평가기준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 항목 편성 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필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윤 순 목**  
의원

소속정당  
담당지역  
연락처  
이메일

국민의힘  
양서면, 서종면  
010-4131-5494  
yoon5494@naver.com



서증-잠실 간 광역버스 개통식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 회의



### 행정사무감사

#### 신활력플러스 사업

소규모 농가의 실질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가공센터 리모델링은 본래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로컬푸드직매장은 수요조사 기반의 적정 입지 선정으로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필요

#### 경기 더드림 및 양근리도시 재생사업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도심 활성화 방안 필요

#### 양수리 및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

파손된 공영주차장 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하고, 유료 운영을 위한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의 체계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 필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치,  
군민들과 직접 닿아있는 생활 정치로  
다가가겠습니다.

”



**최 영 보**  
의원

소속정당  
담당지역  
연락처  
이메일

더불어민주당  
양평읍, 옥천면  
010-7111-8500  
yp0490@naver.com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2025 상반기 양평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



양평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 자치법규 정비

개정·폐지된 법률이 반영되지 않은 양평군 자치법규와 미설치된 법정위원회를 파악하여 정비 및 설치 운영 계획 수립 필요

#### 드림톡(청소년 전용공간)

강상면 청소년 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효성 낮은 예산은 운영비 등으로 재배정하며, 프로그램 확대와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프로그램과 지원 혜택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인 톱버스 사업 도입과 교육 계획 수립, 홍보에 노력 필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젊은 생각과 젊은 패기로  
군민들께 더 뜨겁고,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



**송진욱**  
의원

소속정당  
담당지역  
연락처  
이메일

국민의힘  
강상면, 청운면, 양동면  
010-4236-3106  
src3106@naver.com



개군면 체육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새해 음면 방문



용문교회 부설 은빛대학 개강식



용문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현판식



제14회 양동면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 행정사무감사

#### 청년정책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입 지원과 특화정책을 발굴하고, 단기 고용을 넘어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필요

#### 공모사업

우리 군의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기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가로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 지침 등을 마련하여 도로변 가로수가 명품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촉구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백마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진지하고 겸손하게  
군민 속에 스며들겠습니다.

”



**여 현 정**  
의원

소속정당  
담당지역  
연락처  
이메일

더불어민주당  
단월면, 용문면  
010-5699-8699  
ppojjagi@naver.com



양평군의회 맞춤형 직무교육



제27회 양평이봉주마라톤 겸 경인일보 남한강 마라톤대회



제29회 개군면민의 날 기념식



제47회 경기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 세월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

법률검토를 통한 부기등기 추진, 주민 공론화를 통한 공간 활용 방안 마련, 갈등조정 프로그램과 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 방안 촉구

####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내역

위탁 관리 협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용문 천년시장 내 1·2공구 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위수탁 관계에 대한 보고 필요

####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와 한계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한편, 대상 부지의 활용을 위한 대체 방안 촉구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민희**  
의원

소속정당  
담당지역  
연락처  
이메일

국민의힘  
강하면, 지평면, 개군면  
010-8012-8249  
jminhui13@gmail.com



2025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환영식



2025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2025년 새해 읍면 방문



제27회 양평이봉주마라톤 겸 경인일보 남한강 마라톤 대회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대회



## 행정사무감사

### 기금 현황

체육·교육·농업발전기금이 각각 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복지 향상,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 조성, 농업 분야 지원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촉구

###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비반려인을 포함한 반려문화 조성 and 반려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축산반려동물과 및 전문가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촉구

### 관내기업 우선계약

홍보·마케팅 활성화와 이벤트 운영, 배송비 지원, 홈페이지 운영 전문성 강화, 타지자재 벤치마킹을 통한 관내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 촉구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숫자로 보는 상반기 의정활동

2025. 1. 1. ~ 2025. 6. 30.



**“함께 써 내려간 2025 상반기 의정의 기록”**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온 시간  
그 여정의 한가운데엔 늘 ‘군민의 삶’이 있었습니다.**



제307회 임시회  
처리안건 **10건**



조례안 **8건**



예산안 **1건**



기타 **1건**



5분발언 **2건**



제308회 임시회  
처리안건 **21건**



조례안 **13건**



예산안 **1건**



기타 **7건**



5분발언 **3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 **24건**



조례안 **15건**



예산안 **2건**



기타 **7건**



5분발언 **2건**



상반기 합계  
처리안건 **55건**



조례안 **36건**



예산안 **4건**



기타 **15건**



5분발언 **7건**

#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

군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 조례로 이어지다.

양평군의회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회기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 오혜자 부의장

###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공모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사전검토 절차 마련, 의회 보고 등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 하고자 제정함

## 윤순옥 의원

###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병의 뜻에 무병의병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무명의병 발굴 및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함

###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직무수행, 음식물 및 선물의 수수 가액이 상향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 및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함

###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정비함으로써 양평군의회위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함





**의회** 최영보 의원

**양평군의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고, 임시회의록·영상회의록 등 회의 중계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함



**의회** 송진욱 의원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행 운영 실정에 맞추어 이용료의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휴관일에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함



**의회** 여현정 의원

**양평군의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양평군의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함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양평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 제175차 정례회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지난 1월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양평군의회가 공

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이덕수 협의회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황선호 의장과 전진선 양평군수는 의정 및 군정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식, 정례회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을 환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 ▲공공개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 촉구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택된 안건은 사무국 검토 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책 제안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반기, 좀 더 군민 가까이... 군민의 삶을 살핀 발자취

- 회기마다 진정성 담아, 군정 살피고 조례 손질

2025년 상반기 동안 3번의 회기를 통해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을 위한 뜻깊은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 [2월] 새해 첫 회기, 제307회 임시회로 시작을 알리다!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군수 제출 조례안 4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보류됐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원 부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됐으며, 세미원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채택하였습니다.

### [4월] 예산은 아껴 쓰고, 감사는 다시 살피 군정 신뢰 향상!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5,700만원의 과다 편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산 심의도 이어졌습니다.

### [6월] 군민 안전, 예산의 지속성, 정책 실현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

제309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주민 청구로 상정된 청소년안심귀가 택시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군민 중심 의정 실현

양평군의회는 상반기 동안 군민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의 건전한 운용, 그리고 균형 있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숨 쉬고, 군민과 함께 나아가는 의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 양평군의회,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에 선두적 역할 할 것

-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회' 공식 출범,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

지난 3월 25일 양서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132차 경기동부권시·군의회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회 구성과 실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남양주, 광주, 하남, 이천, 여주시의회의 의장이 참석했으며, ▲제131차 회의록 승인 ▲차기 정례회 개최지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논의된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회'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시·군의회 의장과 시민대표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12명, 법률·행정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5명, 주민 및 의회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45명 등 총 6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협의체는 시작일 뿐이며, 주민 고통 해소와 부당한 규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경기동부권 전역의 실질적 피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상수원 보호와 주민 권익의 균형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 양평군의회, 경기도 내 입법활동 '최고'... 군민을 위한 조례 입안에 앞장

-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경기도 1위



양평군의회는 제9대 개원 이후 입법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양평군의회는 의원 1인당 13.6건의 의안을 발의해 경기도 31개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의회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 전 과정에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민과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전문적 지원을 바탕으로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농업, 환경, 공동체, 미래세대,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입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황선호 의장), ▲1회용품 사용 줄이기(오혜자 부의장),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윤순옥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최영보 의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송진욱 의원), ▲탄소중립 기본조례(여현정 의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지민희 의원) 등의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을 통해 양평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양평군의회, 제1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현장 찾아 지역 밀착 의정 실천

- 산나물 체험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두가 함께한 의미 있는 축제

# 제1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경기 대표관광 축제인 ‘제1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지난 4월 25일 오전 개막식에 이어 27일까지 용문산 관광지 일원 및 용문역에서 펼쳐졌습니다.

개막식은 “Let’s GO ‘떡GO 쉬GO 즐기GO’ 양평 산나물!” 라는 슬로건 아래, 환영사, 축사, 대북타고, 초대형(500인분) 산나물 비빔밥 나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선호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오혜자 부의장, 윤순옥 의원, 최영보 의원, 송진욱 의원, 여현정 의원, 지민희 의원) 모두 참석하여, 지역 특산

물인 산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각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양평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의회는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얻은 의견을 정책으로 연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눈은 날카롭게, 해법은 풍성하게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한층 달라진 모습 보여줘

- 행정의 거울 들이대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 마쳐



양평군의회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군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윤순옥 간사와 오혜자, 최영보, 송진욱, 지민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오혜자 부의장은 양평공사 운영 실태와 신재생에너지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필요한 입법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윤순옥 의원은 농촌사업과 도시재생, 주차장 관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군민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영보 의원은 책임감 있는 감사와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복지와 민원 분야에서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송진욱 의원은 가로수 전정 관리 부실과 청년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꼬집으며,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현정 의원은 세월리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라온 에코포레스트 사업 파행을 지적하며 군민 공론화와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희 의원은 농업발전기금의 과소 납입 문제를 짚으며 조례 개정과 출연금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개선책과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회기 운영 현황

“민의를 담고, 군민의 삶을 듣고...  
그 모든 시간은 기록이 됩니다”

상반기 회기, 하루하루의 회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시간의 누적이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회기 운영 현황

회기명	개회일	폐회일	개최일수	처리안건	
계			40	55건	
제307회 임시회	2. 14.(금)	2. 24.(월)	11	10건	조례안 8건, 예산안 1건, 기타 1건
제308회 임시회	4. 10.(목)	4. 21.(월)	12	21건	조례안 13건, 예산안 1건, 보고 및 기타 7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6. 4.(수)	6. 20.(금)	17	24건	조례안 15건 예산안 2건, 기타 7건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07회 임시회

( '25. 2. 14. ~ 2. 24. 11일간 )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	의결결과
1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원안가결
2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오혜자 의원	원안가결
3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	원안가결
4	양평군의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	원안가결
5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진욱 의원	원안가결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7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8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9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0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 2025년 상반기 회기 운영 현황



제308회 임시회

(‘25. 4. 10. ~ 4. 21. 12일간)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	의결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여현정 의원	원인가결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여현정 의원	원인가결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여현정 의원	원인가결
4	2025년도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	의장	원인가결
5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6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7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8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9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부결
10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11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12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3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14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5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16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17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18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19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20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평군수	원인가결
2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 '25. 6. 4. ~ 6. 20. 17일간 )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	의결결과
1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여현정 의원	원안가결
2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	의장	부결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원안가결
4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윤순옥 의원	원안가결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영보 의원	원안가결
6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원안가결
7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8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9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0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1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2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3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4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5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7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8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9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0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1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2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양평군수	원안가결
2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양평군수	원안가결

---

# 2025년 상반기 5분 자유발언



연번	회기명	발언일시	의원명	주요내용
1	제307회 임사회	2025. 2. 14.(금) 10:11	오혜자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양평군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촉구
2	제307회 임사회	2025. 2. 24.(월) 10:00	여현정	양평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3	제308회 임사회	2025. 4. 21.(월) 10:00	지민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무
4	제308회 임사회	2025. 4. 21.(월) 10:16	최영보	책임을 묻는 의회, 응답을 기다리는 군민 (지방행정의 책임과 의회의 책무에 대하여)
5	제308회 임사회	2025. 4. 21.(월) 10:07	오혜자	양평군민의 환경권을 위하여
6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025. 6. 4.(수) 10:08	최영보	2025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자세
7	제309회 제1차 정례회	2025. 6. 20.(금) 10:01	오혜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C에서 그리는 양평의 미래



오혜자 부의장



## 5분 자유발언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2. 14.(금) 10:11

###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양평 군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촉구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양평군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평군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보호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제한적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평군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입은 저조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양평군의 재정 자립도는 17.3%에 불과하여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유치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일부 공모사업들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위해 약 62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과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타당성 분석과 공모 선정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경우 분만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의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선발된 의료진이 이탈하고 추가 인력 확보마저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추진 이전에 사전 조사 및 운영 가능성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경우 2019년에는 47%였던 국비 보조율이 2025년에는 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양평군이 추진한 40개의 공모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중에 5개의 사업은 70%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로 추진이 된다면 오히려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의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추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전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중장기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통해 필수 절차 등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전략적인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양평군의 실정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현정 의원



## 5분 자유발언

제3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5. 2. 24.(월) 10:00

### 양평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가녀린 인동초가 긴 겨울 이겨내는 힘은 머지않아 봄이 오리라는 믿음에 있다.

격변의 시기인 2024년, 2025년 겨울의 매서운 한파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사회 대혼란과 얼어붙은 민생 경기로 상처받고 고통당하셨을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잘 이겨내고 생동감 넘치는 완전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 용문면에 조성 중인 다문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산 101번지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는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생활권 공원 중 공원녹지법상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3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9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통상적 공원 시설 중에서도 산책로 조성이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동의를 심사 당시 담당관은 남아 있는 10%의 공사는 산책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파고라 등의 부대 시설 설치 공사가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문근린공원을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문면 지역 주민들과 인근 면 주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문면 흑천, 연수천 산책로가 해당 면에 조성된 여러 산책로들이 다문근린공원만 못하지 않기에 운동 삼아 걸어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차량을 이용해 산책로가 전부인 다문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현황을 예측하고 그중에서도 차량 이용 방문객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되는 예산 대비 기대 효과 분석 자료를 가지고 74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와 부지매입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기초 조사를 하고 양평군의 의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원 조성하는 립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원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 용문면의 주차 문제 해결이나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305회 임시회의에서 의안이 부결되고 이번 307회 임시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4개월 동안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 이유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는 전진선 군수님은 다문근린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통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17일 개최되었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가량 질의하고 토론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1일 금요일 밤 특위의 심사를 거쳐 보류하기로 결정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

의장 직권이나 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유권 해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위원회에서 종결하여 폐기된 의안이 아닌 결정, 보류한 의안이 의안은 계류 중인 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는 어떠한 규정함이 없어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한 경우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위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적법한 의회 동의 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위 또한 원인 행위 없으므로 원천 무효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듯 절차적 위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의안을 부인하고 표결한다면 양평군의회는 법적,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난 등 긴급 현안이나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라 주문한 사업을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이권 결탁과 정치적 의도가 노후하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양평군의회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는 조례안 등에 대해 졸속 처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질의 토론 등을 거치며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기에 만일 이러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보류된 안건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소한의 토론도 없이 단순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의원들의 입법 권한인 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원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군민들에 대한 폭력과 횡포입니다.

보류한 본회의 부의를 대표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의사결정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지방의원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대별, 계층별, 부문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요소에서 나서는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의원의 주민은 주민을 대하는 자세이며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74면 조성이 누구에게 절실하고 긴박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번 부지매입 결정 보류가 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권력과 압력에 굴종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힘의 논리로 민주적 결정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일방의 편만을 들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피로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냅시다. 주차장을 늘려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 해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주차장은 부족해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다시 주차장을 늘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된다면 결국 시내는 온통 주차장과 자동차로 도로가 메워질 것입니다.

이런 양평 괜찮습니까? 주차장 개설로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보와 기회가 편중 없이 골고루 공유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과감한 시스템의 과감한 개편과 부득이 필요한 주차장은 군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만들고,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순환버스와 관광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시장과 역으로 가는 길은 안전한 도보 길과 자전거 길로 조성하고,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상시적으로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고, 양평의 특산물로 만든 먹거리와 제품들을 찾아 사람이 몰려드는 용리단길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광장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흑백 요리사 대결이 펼쳐지고, 먹방 유투버들이 앞다퉈 찾는 원픽 시장, 어디서도 흉내 내지 못할 품격 있는 도시 만들어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2040년 양평군 에너지 자립, 2050년 양평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 25억 원을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에 써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정치적 이유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영을 갈라 싸우지 말고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라.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우리에게 요구한 시대적 과제가 아니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 지혜로운 방법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현명한 대안을 주민들에게 묻고 듣고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위축된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며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와 머무는 도시가 되게 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정의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골고루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즉 양평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론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 민 희 의원



## 5분 자유발언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21.(월) 10:00

###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무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4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회 내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고 임기 동안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의 뜻을 군정에 투영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이라 불리는 것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용문면 다문리의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사업이 양평군 주민 숙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문면은 1만 8,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인구수 1만 4,000명인 양서면에 비해 공영 주차장의 규모가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이 또한 동부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문리는 용문역과 용문천년시장 그리고 용문산 관광지가 위치해 있기에 1년 내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서 예전부터 주차장 증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용문면 주민들이 그 해결을 요구해 왔던 주민 숙원을 약간이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정쟁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양평군의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맞습니까?

맞다면 양평군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원이 양평보다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또한 주민들의 삶과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의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족한 주차장의 확장이 그 본질입니다.

회의의 절차상의 문제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두 의원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안전에 대해서 그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절차상의 하자가 본회의의 의결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진행되지 못할 것이고 용문면의 주민들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의 본질은 용문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주차장의 조성입니다.

절차적 하자를 앞세워 주차장 조성사업을 표류하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주차장의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 온 용문면 주민들의 희망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현정 의원님도 용문면 주민으로서 다문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일대의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평의 주민들과 외부의 관광객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모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리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회와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행위에는 그 어떤 공공의 정의도 없습니다.

있다면 의원님의 극히 사적인 정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망미1리에서 긴급 환자가 사망했다는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던 망미1리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정쟁만을 위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 제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간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3, 40년 전에 그런 권위주의적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소통하고 미래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내 의원은 주민의 선택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절대 개인의 영달과 인기에 편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도 앞으로 일 년여 정도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선택해 주신 주민들의 뜻과 양평군의 발전을 위하여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보 의원



## 5분 자유발언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21.(월) 10:16

### 책임을 묻는 의회, 응답을 기다리는 군민 (지방행정의 책임과 의회의 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최영보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 행정의 책임과 의회 의원의 책무에 관련하여 양평군 용문면에 조성 중인 다문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전히 이용자 현황 예측도, 기대 분석 효과도 최소한의 기초 조사도 없이 부지매입의 근거도 하지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도 하지 못한 채 직전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여 분간 질의와 토론을 포함한 민주적 의결을 거쳐 심사 보류한 용문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절차적 부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 중인 사업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판결과 의회 의결 무효확인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아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단 한마디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님들의 상식적 판단과 결정마저 지시하고 조정합니까?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피 같은 군민들의 세금을, 권익을 오용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여 양평군의 주인인 주권자 군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용문면 다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는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생활권 공원 중 공원녹지법상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다문근린공원은 관광 시설이 아니라 산책용 공원이기에 74면 주차장 조정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담당과는 인근면에 주민들이 일부러 차량을 가지고 산책로가 전부인 다문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예산 확보를 위해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사업 예산 승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위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적법한 의회의 동의 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위 또한 원인행위 없으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이렇듯 절차적 위법임을 인지한 동료 의원님들이 더군다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묵가하고 졸속 강행하는 것에 대해 양평군의회는 법적, 사회적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출직 군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주민의 뜻을 대의하는 군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특정 집단과 세력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행정적 서비스가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살피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의원의 올바른 자세이며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졸속으로 추진하는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누구에게 절실하고 긴박하게 필요한 것인지.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고 힘의 논리로 민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의 편에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주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푸르러질 봄입니다.

무엇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았던 시간 속에서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며 꽃을 피워내고 새 생명을 틔워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정치도, 의회도 이 봄의 생명력처럼 변화를 일구고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것들이 내일을 꿈꾸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혜자 부의장



## 5분 자유발언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21.(월) 10:07

### 양평군민의 환경권을 위하여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4월의 푸르름과 만개한 꽃들로 향기 만개한 꽃들의 향기로 코끝을 간질이고 있습니다.

냄새, 여러분도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냄새에는 꽃향기, 엄마 냄새, 어린이의 달콤한 냄새 등 그와 반대로 생각하기 싫은 냄새도 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냄새, 분노 냄새 등 냄새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권리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천해야 할 책무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최근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 양평축협 농축순환자원센터와 양평군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백여 명이 달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군은 물론 경기도청, 국회의원실까지 제출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인내의 연속이라 할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취로 인한 고통이 주민 생활 전반을 침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평군이나 축협 또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기에 악취 저감을 위해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공동자원화 공모 시설을 통하여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15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악취 저감 장치가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설치 이후 오히려 감지되지 않던 역한 냄새까지 더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간 묵묵히 참아오던 주민들까지 모두 함께 한목소리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이 냄새로 고통받지 않고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한 복합악취 측정 결과에 따르면 부지 경계에서 수치는 3으로 확인되어 법에서 정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인 15보다 훨씬 밑돕니다.

즉, 현행법상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주민이 괴롭지 않다

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30년을 넘게 이어온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 수 없고 아이들은 등굣길에서 코를 막아야 하는 현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 악취 또한 숫자보다 체감으로 삶의 감각으로 경험되는 문제입니다.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의 책임을 멈추기엔 지금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환경권은 생존 문제이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악취방지법 역시 이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은 단지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양평이 품은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행정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간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군이 주민의 고통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범대입니다.

악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다행히 군에서 고정식 악취측정기 설치 예산을 반영하고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고지하며 수시 점검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악취 포집 설치, 추가 설치 등 기술적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원도 홍천군 소매공예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뚱뚱 마을이라고 불리던 그곳은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주민의 삶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지만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손을 맞잡으며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양평군도 비록 해당 시설이 민간 소유이자 공유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이 양평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군민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군이 보다 깊이 고민해 볼 방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을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에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를 확대하고 측정 결과를 주민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며 악취 발생 원인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주민들이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주민 건강 역학조사,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등도 장기적인 과제로 단계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진정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은 공기 없이 3분을 살 수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행정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을 따르되 사람의 삶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해 주십시오.

정치는 가능한 것을 실현하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는 예술입니다.

지금 양평군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악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덜어주려는 군의 진심 어린 노력은 주민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양평군이 주민을 향한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이 양평을 살기 좋은 고장, 쾌적한 향기의 터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첫 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내딛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보 의원



## 5분 자유발언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 6. 4.(수) 10:08

### 2025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자세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먼저, 21대 대통령으로 새롭게 당선되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치러진 선거를 끝으로 치열했던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경쟁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지이자 군민을 위한 한마음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진지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교체는 단순한 정권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의 정치를 통해 희망과 변화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국정의 성공은 결코 한 사람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제도는 충실히 작동하며 정치와 행정이 각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양평군의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율하며 견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양평군 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침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의회 고유의 권한이자 군민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책무이며 군정이 군민의 삶에 미칠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미래의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며 본 의원은 여러 부서에 사업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받아 본 자료들 가운데는 매우 부실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서는 사업개요부터 예산 집행, 기타 추진현황에 이르기까지 고작 1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요약본에 첨부 자료 하나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원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요청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비교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료 자체가 부실하면 그 분석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까지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담당 부서에서는 추가 자료 요청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묻고 행정은 군민을 위해 답해야 합니다.

부디 2025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체계를 개선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적 수치나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효과 중심의 평가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속 수치보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우선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전시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보여주기식 행정, 책임 회피성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일상 속 불편과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세심한 주목입니다.

작고 소외된 문제일지라도 군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끝까지 파악하고 반드시 개선해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의무의 장입니다.

감사는 상호 불신이나 대립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민의 대의기관과 행정기관이 함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양평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은 명확하고 성실하게, 설명은 책임있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보다 개선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결국 군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양평군의 행정이 한 걸음 더 성숙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양평군의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양평군이 다시 바로 서고 행정을 되돌아보며 도약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번 감사는 과거를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군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감시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더 큰 양평의 꿈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혜자 부의장



## 5분 자유발언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0.(금) 10:01

###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에서 그리는 양평의 미래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오늘로써 17일간 이어진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도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벌써 낮이 가장 길고 몹시 더워지기 시작하는 하지입니다.

질어질 녹음 속에서 성큼 다가온 여름만큼이나 계절은 흐르고 자연은 변하지만 우리 양평군이 안고 있는 숙원과 과제는 여전히 무겁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안이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우리 양평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범 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6가지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러한 불이익 속에서도 양평군민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입니다.

길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는 말처럼 고속도로는 양평군의 미래를 밝히고 경제적 변형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

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2008년 최초 타당성 조사 이후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오랜 시간 동안 양평군민의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렵게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의 문턱을 넘었지만 2023년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다시금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 국토부와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한(이하 예타안) 강하IC가 포함된 노선 변경 사이에서 양평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교통수요 분산 효과 측면에서 변경안이 확실히 우위를 갖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은 예타안보다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수리 국도 6호선의 만성 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강하면과 청운면 일대의 고질적 교통 불편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둘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변경안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타안은 양평읍 중심으로 교통축이 집중된 반면, 변경안은 강하IC를 통해 남부권과 동부권까지 발전의 축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강하면과 청운면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 및 사회적 수용 측면에서도 변경안은 예타안보다 안정적입니다.

예타안은 남한강을 두 차례 횡단하고 전원주택 밀집 지역을 관통하여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면, 변경안은 터널과 교량 구조물 비중을 높여 환경 훼손을 줄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도 낮아 사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넷째, 경제성 역시 변경안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변경안은 예타안 대비 0.8% 수준의 비용 증가에 불과하며, 민원 대응 비용, 환경 보존, 장기적 교통수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훨씬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입니다.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 환경 안정성이나 경제성 모든 면에서 예타안을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로 계획이 아니라 양평이라는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양평군민들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강하IC가 포함된다면, 양평군의 이익이 되는 노선이라면 어떤 노선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예타안보다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이 양평군과 군민에게 훨씬 더 이롭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지지하는 것일 뿐 변경안 노선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앞으로 양평에 더 이로운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수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양평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뿐입니다.

양평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교육, 복지,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며 군민의 일상과 삶을 변화시킬 성장의 엔진입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닙니다.

6가지 중첩된 개발 규제로 묶여 있던 양평 남부 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입니다.

강하IC는 국도 6호선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하IC가 없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반쪽짜리 고속도로입니다.

완전한 양평의 미래를 위한 길.

지금으로선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군민 여러분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숨죽이며 기다려온 소중한 염원이 이번에는 반드시 아름답게 꽃피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13만 양평군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정치적 논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둘째,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을 공식 채택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계획 등 실질적 로드맵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10년 후, 50년 후 우리 아이들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양평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분석이 증명하듯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만이 양평의 진정한 꿈의 미래를 향하는 길입니다.

13만 군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양평군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양평군민 모두의 소망이 담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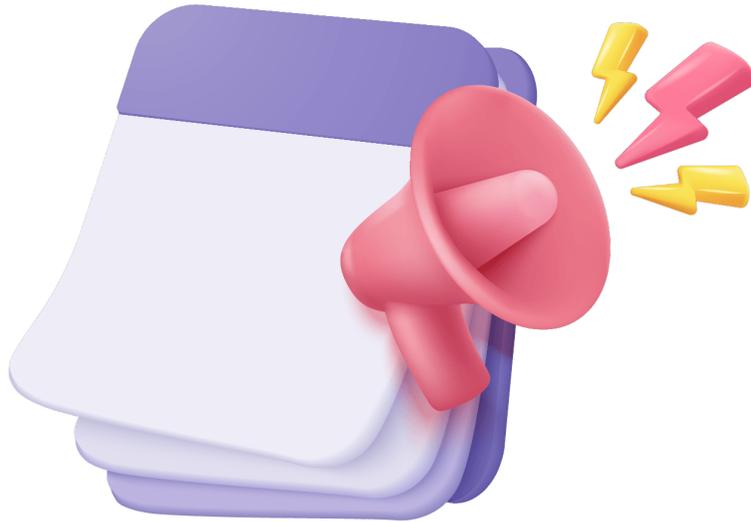
# 2025년도 하반기 양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

# 군정 소식



## 양평군 지평양조장, 100년의 역사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 단장

### - '지평리전투' 프랑스군을 이끌었던 몽클라스 장군 기념공간 마련

양평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평양조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5월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김기환 (주)지평주조 대표, 전 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 알랭 나스(Alain Nass), 지평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평양조장은 1925년에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로, 100년에 이르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프랑스군 지휘소로도 활용됐으며, 몽클라스 장군과 프랑스군의 지평리 전투는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지평주조는 '헤리티지 아이콘(Heritage Icon)'을 주제로, 4대째 이어져 온 지평주조의 철학과 장인 정신을 담아 지평양조장을 새롭게 창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공간은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양조장 내부 공간 구성에 따라 ▲보쌈실 ▲종국실 ▲발효실 ▲양조실로 이어졌으며, 몽클라스 장군이 실제 집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에는 그를 기념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 전시 관람과 함께 향후 '지평 술빚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관련 정보는 (주)지평주조 공식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평양조장은 전통 양조장을

넘어 양평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지역 발전과 상생을 이끄는 중요한 거점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양평군, 서종~잠실 간 광역버스 개통… 주민 숙원 해소

- 6월 20일 개통식 열고 본격 운행 시작



양평군은 지난 6월 20일, 서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서종~잠실 간 광역버스’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종면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할 때 여러 차례 버스 또는 전철을 환승하거나, 상습 정체 구간인 양수리를 자가용으로 통과해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광역버스 개통은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 속에 추진됐으며, 마침내 운행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통식은 서종면 서부노인대학에서 진행됐으며, 전진선 양평군수, 김선교 국회의원,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 금강고속 관계자, 서종면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서종~잠실 광역버스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중점을 출발해 서종중학교 정류장, 문호 4리(소구니) 정류장을 경유한 뒤 서울 잠실 광역환승센터에서

회차하며,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문호리 기준 오후 10시 50분에 도착합니다.

김숙영 서종면 이장협의회장은 “서종면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라며 광역버스 개통을 환영했고, 개통식 후 주민 30여 명이 직접 버스를 탑승해 잠실 환승센터까지 왕복 시승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개통은 서종면 주민들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서종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통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선교 국회의원과 도·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 노선을 제안하고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문호리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역버스 개통으로 서종 문호리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져, 지역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평군, '물안개공원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 산책로와 휴게공간 갖춘 친환경 자연공원 조성



양평군은 지난 7월 1일 양평읍 오빈리 일원 물안개공원과 떠드렁섬 및 양강섬을 연결해 공원을 조성하는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은 한강에 위치한 떠드렁섬과 양강섬, 물안개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인 Y형 출렁다리(연장 169m, 폭 2m)를 설치하고, 떠드렁섬 내 산책로와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양평군은 2021년 떠드렁섬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2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올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완료해 2025년 6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116억 원

으로, '제3차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선정돼 도비 68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사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섬들을 공원과 연결됨에 따라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물안개공원과 양강섬을 잇던 부교는 양서면 용담리에 위치한 '용담수변생태공원' 일원으로 이설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양평읍 도심지 내 한강을 비롯한 양강섬과 떠드렁섬의 풍부한 자연경관을 즐기고 쾌적한 휴게공간이 군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양평군 최초 '양동일반산업단지' 국토부 지정계획 확정!

-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 쾌거!
- 양평군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양평군은 지난 7월 4일 '양동일반산업단지'가 2025년도 2분기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양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처음 시작한 이래 최초로 이룬 민선8기 쾌거입니다.

이번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심의 통과로 그간 양평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숙원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평군은 2024년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영개발방식 계획으로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동면 일원에 사업면적 6만㎡이하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

입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중첩규제로 어려운 동부권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양평군의 균형발전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양평군은 향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32년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회 참여 안내



## 방청

지방자치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 회의 방청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회기 중에도 의회시설을 개방하여 견학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락처: 의회사무과 의사팀 ☎ 770-2526~7]

## 청원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양평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날인한 후 양평군 의회사무과(의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내용의 청원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연락처: 의회사무과 의사팀 ☎ 770-2526~7]

## 진정

진정서는 군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처리 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의회사무과 의정팀 ☎ 770-2521]

# 양평군의회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본관 3층)



홈페이지

[www.ypcouncil.go.kr](http://www.ypcouncil.go.kr)



페이스북에서

'양평의회' 검색



[www.facebook.com/ypcountycouncil/](http://www.facebook.com/ypcountycouncil/)



유튜브에서

'양평군의회' 검색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평군의회 페이스북  
바로가기



양평군의회 유튜브  
바로가기

# 의회소식지 무료 구독 신청안내

양평군의의회는 다양한 의회소식을 담은 「양평군의의회 의정소식지」를 반기별로 발간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군민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방법** 유선신청(031-770-2539)  
우편접수(무료구독신청서 작성 발송)
- 보내실곳**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3층 의회사무과 홍보정책팀



## 의회소식지 무료구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양평군의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식지 발송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기구독 해지 신청 전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소식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의의회의장 귀하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의정소식지 발송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양평군의의회**  
YANGPYEONG COUNTY COUNCIL

**가족 목소리도 조작하는 보이스피싱,**

**믿기 전에 확인부터!**

**자녀나 가족의 전화, 문자메시지**



**요즘 기술로는 자녀나 가족의  
목소리와 얼굴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면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물건을 파손해서 납치했다.”

“마약을 해서 납치했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신변을 확인합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